

새천년민주당

# 남궁석 의원



김재경

## “정보화의 큰 길 여는데 기여해야죠”

인터넷의 영향은 혁명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 각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개인 기업 국가의 흥망이 인터넷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위력이 막강하다.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래 전부터 인터넷이 가진 위력을 예측하고 기업인으로, 관료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 정치인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됐다. 의정활동 준비에 바쁜 남궁석 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 지금까지 정보화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본 전문가로서 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본 장본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보화의 큰 길을 여는 데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의정활동은 강제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야의 지지를 모두 받는 가운데 정부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석

=대담자 정진욱 교수=

- 현 성균관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부 교수
- 성균관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으로 석사학위 취득.
- 서울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정보처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이란 점이 활동에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정보화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본 전문가로서 또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본 장본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보화의 큰 길을 여는 데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의정활동은 강제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여야의 지지를 모두 받는 가운데 정부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석 전 장관님께서도 정보통신부 장관 재직 시절 '사이버코리아21' 등 많은 일을 의욕적으로

이번 16대 국회 의원에 당선되실 것으로 정계에 입문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제인에서 관료로 다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데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과 비교해서 앞섰다 뒤섰다는 평가를 내려 방심하거나 안타까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만들어서 정직하게 가다보면 결국 선두그룹에 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몇 가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몇 가지 필수적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두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기간망 쪽인데, 금년 말까지 기간망 연결은 완결될 것으로 봅니다. 기간망에서 가입자망까지 연결은 몇 개 통신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가입자 확대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신고도화 작업은 앞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해서도, 또 아시아권에서도 우리나라가 1등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에 대한 컴퓨터 교육입니다. 이것도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군·공무원·여성 교육 등 네 가지 부문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학교 교육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학교를 도와주려면



하드웨어, 통신, 통신요금, 소프트웨어 등 네 가지를 균형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현재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학교육입니다. 인터넷 시대에서는 영어와 중국어 정도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아직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보 인프라를 사용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정보부문에 신경써야 합니다. 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일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 정보보호법 제정 같은 정보 역기능에 대한 방지 대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이 각 가정에 보급되고 기업들의 인터넷 활용이 늘어나는 등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사회 각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빨리 알려져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격려가 될 수 있는 등의 좋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인터넷이 주는 충격인데, 우리 국민은 인터넷이 주는 충격이 예상외로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연구해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만 합니다. 최근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사원, 증권회사나 은행 지점 등의 중간계층이나 조직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몰고 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정책의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인터넷이 가져온 당연한 변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인터넷이 주는 충격을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인터넷에 의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민석

“ 최근 대리점이나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증권회사나 은행 지점 등의 중간계층이나 조 직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이 몰고 온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정책의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인터넷이 가져온 당연한 변화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는 인 터넷이 주는 충격을 예측하고 미리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인터넷에 의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도 정보화에 맞게 변화되 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할 것입니다. 의정활동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입법 활동에 반영한다면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 꿈이 소설가라고 들었습니다. 평소 에 어느 장르의 책을 읽으시는지요? 또 최근에 감 명깊게 읽은 책 한 권만 소개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에 몇 권의 책을 발표한 것으로 아는 데 그 작품과 얽힌 사연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질라래비 훨훨〉은 정보화의 베이직인데, 삼성 SDS 사장 시절 직원들과 컴퓨터 통신을 통해 나 는 대화내용을 엮은 책으로, 정보화 물결이 가져 올 미래 세계의 시간과 공간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라이프〉는 정보사 회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한 책입니다. 인터넷에 적응하면 흥하고 그렇지 못 하면 뒤처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권의 책 은 제 가족사를 담은 책입니다. 아들을 잃고 나서 쓴 책으로, 가족 속에 소중한 행복이 들어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빠서 읽은 책이 없고 예전에 본 책 중에서 소개하자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아노 펜지아스 교수의 〈하모니시대〉, 〈아이 디어와 인포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 오. 물론 지역구 활동이 우선일 줄로 압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하 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크게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는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 재임시에 세운 「사이버 코리아21」의 교육부분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균 형있는 지원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 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행정부의 정보화입니다. 행정기관에 가서 뭘 좀 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해 오라는 서류 가 많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합리와 비능률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 등을 생 각할 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부조직도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습 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입니다. 미국처럼 번호 하 나만 가지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새로 짓는 도시가 기존의 도시보다 못합니다. 최근에 새로 생겨난 신도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입니 다. 난개발로 인해 국토가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 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입니다.